

서울 3만2147km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서울시, 관련 법령 개정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 구성 정기·특별점검도 실시

서울시는 13일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

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

최근 아현동 KT화재, 경기 고양시·서울 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 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만2147km다. 이 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시는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 물에 대해 점검허가와 점검료 부과 시(연 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한다. 열수송관

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 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시는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동구만 2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함박눈이 내려요” 13일 서울 송파구청 어린이집 아이들이 구경 앞 광장에서 눈을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개량화 위한 재생 심포지엄 개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오늘 시청 강당서

서울시가 14일 오후 2시에 '노후 저층주택 개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층 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노후 저층주택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심포지엄 발표내용은 '노후 다세대·다세대 밀집지역 재생방안'과 '비모델링 활성화구역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이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장욱연 운공간연구소 소장, 박화룡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재형 내일신문 기자, 김종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종일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의 심도 깊은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문가, 도시재생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주거재생과(02-2133-7182),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02-568-1863)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구민 마케팅조성물지원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인천공항 스마트 계량·계측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서 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가운데), 카스 김태인 대표이사(왼쪽)와 항공사운영위원회 정연주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 내년 '스마트저울' 설치

체크인카운터 등에 200대 설치

인천공항 출국장의 탑승게이트와 체크인카운터에 내년까지 스마트저울 200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2일 계량 시스템 생산 전문 기업 카스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와 인천공항 스마트 계량·계측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양해각서·MOU)을 맺고 인천공항 내 스마트 수하물 저울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무료로 위탁이 가능한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는 각 항공사와 여객기 좌석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승객들은 자신이 탈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찾아 체크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에 도입되는 스마트 수하물 저울은 출국 승객이 탑승권만 인식하면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에 따른 무료 위탁 및 기내 반입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디지털 센서를 통해 짐의 무게와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항공사별로 사용 중인 아날로그식 철제 수하물 저울을 대체할 공용 스마트저울을 내년까지 인천공항 내 모든 탑승게이트와 체크인카운터 지역에 총 200여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유아 등 차내 갇힘 올해 87건 서울시, 국내 최초 '생존체험장' 운영

서울시가 차량에 갇혔을 때 스스로 생존법을 익히는 체험장을 양천소방서 내에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갇힘 생존체험장은 안전벨트, 경적, 핸들이 장착된 모형차량에서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익히는 곳이다.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훈 후 운전석으로 이동, 핸들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빵빵 경적을 울려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게 된다.

차량 문 개방 관련 구조신고는 월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아가 차량에 갇혔을 경우 겨울철엔 한랭사고, 여름철엔 온열사고로 생명을 위협이 처해질 수 있다.

최근 3년간(2015년 1월1일~2018년 11월30일) 자동차 문 개방 구조 신고는 총 219건 발생했다.

차량 내 갇힘 사고의 경우 2015년 60건, 2016년 83건, 지난해 270건, 올해 11월 말 기준 355건 발생했다. 이 중 유아가 등 차량에 갇힌 사고는 2015년 11건, 2016년 37건, 지난해 60건, 올해 11월 기준 8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